

해체주의 표현기법을 이용한 핸드니트 디자인 연구 - 패션에 나타난 빈곤적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

하 승 연 · 이 연 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현대 패션의 다원적 상황 속에서 해체주의 패션은 패션에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패션에 있어 해체주의 정신을 분석하여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 부터였다. 해체주의가 어떤 개념으로 표현되었는가 하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니트 디자인에서 해체주의 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외적, 내적 의미를 살펴보고, 특히 해체주의의 외적의미로서 빈곤적 표현기법을 이용하여 핸드니트 작품으로 형상화 시키고 해체주의 이론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해체주의는 단일한 사상체계가 아니라 20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여러 현상들을 포함한다. 해체주의에 나타난 것은 표면적 불안정을 통해 기존의 조화, 통일, 안정성과 같은 가치에 도전하는 것으로 본질을 단일화시키고 규격화하는 절대성을 거부한다. 패션에 있어서 해체주의 용어를 도입한 것은 1989년 디테일즈(Details) 잡지에서이며, 패션 디자이너 레이 가와쿠보, 장 뽀플 글디에, 마틴 마지엘라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해체주의 패션은 크게 외적의미로는 노출, 파괴와 분해, 빈곤과 황폐, 탈장르, 내적의미로는 상호텍스트성, 탈현상성, 자연의 유희, 타자성의 부각으로 분류된다.

특히 20세기 후반 대중문화는 의도적으로 복식에 슬래쉬하고, 손상하고 찢고, 흠을 내는 등 외형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본질의 가치성과 내재적 의미에 중용성에 가치를 둔다는 것으로 궁핍한 의복이 의복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적용된 복식의 해체는 멀쩡한 천에 칼집을 내고, 의복을 휴지처럼 볼품 없이 구겨놓기도 하며 혹은 낡은 천으로 의복을 만들어 새 것이라는 물질의 개념을 파괴하고 의복의 형태와 구조를 파괴하여 충격 효과와 긴장감을 준다. 이러한 슬래쉬, 프린지, 구멍, 일상적 하찮은 소재의 사용은 의복의 전통적 예절과 실용성을 거부하는 동시에 은폐와 노출의 양면가치와 함께 완성과 미완성 사이에서 미적 고정관념을 해체한다. 뿐만 아니라 부를 상징하는 디자인 요소를 버리고 빈곤해 보이는 디자인 요소, 즉 패치워크, 탈색 및 염색, 패딩, 프린징, 미완성과 핸드메이드 등을 선택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해체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체주의의 여러 가지 외적, 내적 의미 중에서 빈곤적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핸드니트 디자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 니트 패션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 의해 활동적이며 편안하며 기능성과 심미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아이টে็ม으로 각광 받고 있다. 니트 패션의 최근

트렌드는 2개의 극단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아주 얇거나 아주 두껍다. 두꺼운 니트는 '어머니가 짜 준 스웨터' 같은 스타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즉 벌키 니트(bulki knit)는 2001 가을, 겨울 시즌부터 선호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전의 켈러나 패턴 위주의 변화보다도 조직감이나 표면감이 주는 텍스춰 효과가 포인트가 된다. 케이블 조직을 변화 있게 구성해서 조직감을 강조해주는 것이 디자인 포인트가 되어 표면의 시각적, 촉각적인 변화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벌키 니트의 가장 큰 특징은 손으로 직접 짜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점이다. 그러나 벌키 스타일이라 해도 두껍고 투박한 느낌보다는 몸에 흘러내리는 듯한 스타일을 연출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테리다의 해체이론을 중심으로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외적, 내적의미를 분석하고, 특히 해체주의의 빈곤적 표현기법을 이용하여 최근 니트 패션의 경향인 벌키 니트 스타일로 작품을 디자인하였다. 기본 조직은 핸드니팅 기법인 걸뜨기, 안뜨기, 원코중심 2코모아뜨기, 바늘코 비우기 등 4가지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벌키(bulky)한 느낌으로 풍성하면서도 인체의 선을 살리는 디자인을 표현하였다. 또한 단순한 조직의 반복이지만 극태사와 극세사의 상반된 재료의 혼용으로 표면의 텍스춰에 다양한 변화를 주었다. 소재는 지(紙)끈과 모 소재의 부클 안, 낚시줄, 동선을 이용하였고, 실루엣은 슬림한 H라인으로서 블라우스와 스커트의 투피스 형태로 구성하였다. 결과물은 소재와 형태, 실루엣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색상을 달리하여 작품 I, 작품 II로 나누어 디자인하였다. 색상은 갈색(brown)과 녹색(green) 계열로 나무라든가 숲이 연상되는 자연의 색상으로 구성하였다.

해체주의의 빈곤적 표현기법을 이용한 디자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굵은 재료에 의한 생긴 게이지와 바늘 비우기 기법에 의해 생긴 구멍은 인체의 은폐와 노출을 함께 나타내었으며, 최근 니트 패션의 경향인 벌키 니트 스타일로 작품을 연출할 수 있었다. 둘째, 의복의 재료로 일상적 하찮은 소재인 재활용 지(紙)끈을 선택함으로써 새 것이 아닌 낡은 듯한 이미지의 그런지 룩을 연출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紙)끈을 마무리하지 않고 흘러내리도록 하여 프린징 효과를 줄 수 있었고, 니트의 특징 중 하나인 컬업(curl up) 현상을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미완성의 미(美)를 강조하였다. 셋째, 소재에 있어서 극태사와 극세사, 그리고 종이나 울 소재의 천연재료와 낚시줄, 동선과 같은 인조와 금속섬유라는 상반된 소재를 믹스하여 한 의복 안에서 조화롭게 사용함으로써 소재에 있어서의 해체를 이루었다.